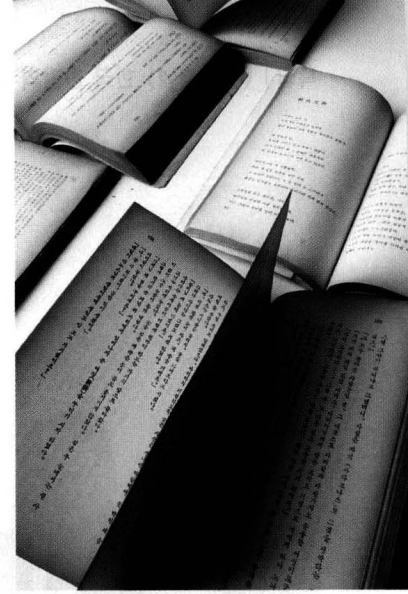


책의 가치를 존중하는 이들의 어울림과 도움, 야단침과 부추김을 기대하며



“거꾸로 된 활자를 바로 세우고 누워 있는 활자를 일으켜 앉힌다. 꼭 바른 자리에 바른 자세로 있어야
만 글자가 글자 구실을 다할 수 있는 건 뻔한 이치 같으면서도 신비로운 섭리나 다를 바 없다.”

이병주 선생의 소설 《행복어사전》의 한 대목이다. 물론, 신문사 교정기자의 역할을 묘사한 부분이지만 여러 모로 책과 출판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의미심장하게 들릴 수밖에 없다. 거꾸로 된 활자를 바로 세우는 것, 누워 있는 활자를 일으켜 앉히는 것은 결국 그것을 담고 있는 책을 바로 세우고, 일으켜 앉힘으로써 글자 구실을, 책 구실을 다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책을 만드는 지난(至難)한 작업은 뻔한 이치 같으면서도 ‘신비로운 섭리’에 다름 아니다.

〈출판저널〉 20년, 그것은 신비로운 섭리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 〈출판저널〉의 창간은 분명 척박한 서평 문화에 새로운 물줄기를 댄 획기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출판저널〉은 “도서 생산자와 독자 그리고 공급자 사이의 신속하고 유기적이며 성실한 소통의 회로로서 기능하면서, 책의 문화를, 그 취약한 틀에서 경쟁력이 강한 틀로, 불균형한 양의 팽창에서 체계 있는 질의 강화로 이끌어 전반적인 구조의 개선에 기여”하며 “벽차고도 숭한, 그러나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을 수행하며 이제 약관(弱冠)의 나이가 되었다.

이제 막 성인의 문턱에 든 〈출판저널〉은 창간 20주년 기념 증면호를 발간하며 한국 출판의 미래를, 거창한 말의 잔치가 아닌 오늘 우리 출판계에서 일상처럼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했다. 제28차 IPA 서울총회 이후 달라질 한국 출판의 위상을 아나 마리아 카바네야스 IPA 회장과 박맹호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의 대답을 통해 들어보았다. 〈출판저널〉 전직기자들의 좌담을 통해 또한 책으로 여는 새로운 미래 공간이라는 주제로 파주출판도시의 가능성을 짚어보았으며, 출판인 교육의 요람으로 자리잡아가는 sbi의 진로를 모색해 보았다.

무언가를 기념한다는 것은, 기쁜 일이기도 하지만 때론 벅찬 책임감을 안고 대할 수밖에 없는 천형(天刑)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애초의 시대정신을 올곧게, 그리고 절절한 마음으로 담아내고 있는가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출판저널〉 20년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책을 즐기고 책의 가치를 존중하는 이들 모두의 어울림과 도움, 야단침과 부추김”을 기대해 본다. **장문**

글_장동석 기자 | 사진_박신우 기자